

## 2005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2006년 새해를 맞아 양봉인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병들었던 아까시나무도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있어 지난 2년간의 악몽에서 깨어나 올 한해는 좀더 풍요롭고 활기 넘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양봉산업은 국가에서 커다란 지원 없이도 과거 10년간 6배 이상의 커다란 성장을 가져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양봉산업이 3,000억 정도의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기자재 시장도 확대되고 실버산업으로써도 각광 받으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양봉업을 과거보다는 관심을 갖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지 않으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축산업계나 농업 분야와 다를 바 없이 우리 양봉산업도 이제 전환기의 시점에 다달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해 서양종 사육군수가 200만군이 넘었고 지난해 벌꿀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는데도 순수한 꿀이 수천 드림이 이월되고 있어 시장에서 수요와 생산량의 바란스가 깨지고 있지 않나 하여 올해부터 꿀 파동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직도 시장에서는 불량 벌꿀이 뿌리 깊게 내려서 자기의 영역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현재의 200만군에서 생산되는 벌꿀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부터는 로얄제리 생산 핑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량벌꿀 생산은 조금이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생산하면 아니 되겠고 또한 판매업자도 이러한 꿀을 생산해 오도록 요구도 하지 말고 사서 팔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은 우리 양봉업계의 빈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빈대는 우리 몸의 피를 빨아 먹고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는 것이기에 잡아내지 않고는 우리 양봉업계도 살아남을 수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항생제나 진드기 구제약으로 인한 오남용을 막아서 꿀의 오염도 최대한 줄여서 소비자들이 국내산 벌꿀을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풍토를 올해는 기필코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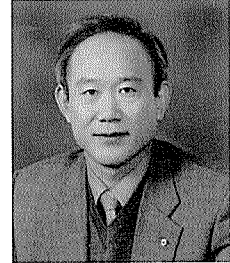
지난 12월 13 ~ 18일까지 세계 무역기구 각료 회의가 홍콩에서 열렸는데 관세 부분 타결이 결렬 되었지만 앞으로 협상이 재개 되더라도 벌꿀에 남아 있는 240% 관세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아세안과 FTA체결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관세 인하는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고 세계 여러 나라와 FTA가 계속 추진되고 있어 이제 벌꿀의 관세 장벽은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UR협상 이후 우리는 12년간 개방에 대비하는 노력은 별로 한 것도 없이 세월만 보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10년간은 그야말로 그동안 준비 못한 것을 더해서 정말 열심히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양봉업계는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양봉업계에 지원된 방역비나 기자재, 사료비 등 우리 업계에 지원된 돈이 수백억원이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조 상 균

되고 있지만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품질고급화와 밀원식재에 대하여 단돈 1억원이라도 썼는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기자재나 사료, 약품은 누구나 사다 쓸 수 있지만 밀원수는 본인이 돈을 주고 사서 심을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입개방이 될 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밀원식재 뿐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지원되는 자금 대부분을 밀원식물 지원 쪽으로 돌리면 우리 양봉업계는 앞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높여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밀원식재 없는 기자재나 약품지원은 많은 돈을 지원 받고도 양봉산업 자체가 몰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사육군수가 포화상태에 있는 지금 기자재나 사료 같은데 지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사육군수만 늘이는 꼴이 되어 부메랑이 되어 앞으로 우리 업계가 파동을 겪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밀원수를 최대한 지원 받고 돈이 남아 돌 때 꼭 필요한 기자재를 일부만 지원받도록 합니다.

2006년 1월 20일은 양봉협회장 선거일입니다.

한국양봉협회장은 우리나라 양봉산업을 이끌고 갈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각 시·도별 지회장 선거를 마쳤는데 왜 상인들이 선거판에 끼어들어 순수한 생산농가들을 현혹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일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자재지원 사업 등 장사수단으로 상인들이 설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는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한 수단이며, 결코 업계발전에는 안중에도 없는 자 들입니다.

우리 양봉업계가 건전하게 살아남으려면 생산자 스스로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진정 어떠한 후보자가 우리 양봉업계를 위해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 선거를 해야 하겠습니까.

생산자 단체는 진정 생산 농민 품으로 돌아가야 진정 생산자를 위한 조직으로 남게 되므로 어떠한 선거든 판매업계에 있는 분들은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양봉업계가 올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 양봉업계가 벌꿀 시장이 개방되면서 대부분 양봉업계가 몰락하여 지금은 30만군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자재 시장도 양봉 사육군수가 현재의 정도를 계속 유지할 때 그나마 기자재 시장이 지켜지지마는 앞으로 10년 이후 경쟁력이 없어져 일본처럼 몰락한다면 기자재 시장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겠습니까.

매년 20% 이상씩 사육군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딸기 하우스 매개별 가격이 예년보다 1~2만원씩 하락했고 꿀 판매가 순조롭지 않아 봄에 증봉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벌꿀이 기호식품으로써 판매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때 홍보를 위해서 자조금 제도를 채택하여 내가 생산한 벌꿀은 내 스스로 홍보비를 내겠다는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올해는 불량벌꿀 근절의 해로 정하여 순수한 양봉농가가 생산한 벌꿀이 순조롭게 판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에서는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 지역별로 불량벌꿀 감시원을 두어 발각 즉시 고발조치 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러한 꿀을 생산 하거나 파는 상인들은 그동안 해 온 것을 관행으로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되어 창피를 당한다는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업이고 시대가 변하는데 따라 변화해 갈 때 살아남을 수 있지 변화에 불응하면 몰락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대 변화에 적응해서 양봉업계가 보다 더 진보된 업계로 발돋움하는 2006년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아까시꿀이라도 풍년이 들어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오며 전 양봉인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